

광주에 사찰음식체험관 문연다

증심사·자비신행회, 광주 서석로서 시범운영 실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재료의 신선한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웰빙식단인 사찰음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제철 음식재료에 인공조미료를 하지 않아 건강과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찰음식은 최근 전문 강좌에 식당까지 속속 들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빛고를 광주에도 자연사찰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들어선다.

증심사(주지 연광)와 자비신행회는 공동으로 광주 동구 서석로에 80여 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빛고를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을 개설한다.

광주지역에 사찰음식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공간으로 처음 개원하는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은 지난 7월 내·외부 공사를 마치고 8월말 개장을 앞두고 8월 11일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체험관 담당자는 "도심에서 만나는 사찰문화(자연사찰음식, 차문화 등) 체험 공간으로서, 생명 평화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사찰의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청년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쉽게 체험하고 교육하

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차문화 보급 전초기지 역할도
체험관에는 자연사찰음식 체험공간 30평, 차(茶)문화 체험공간 30평을 비롯해 다

80여 평 공간, 사찰문화 체험 기회
차문화 교육·템플스테이 홍보

양한 차(茶)관련 문화와 사찰음식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40여 명이 직접 사찰음식을 배우면서 조리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누구나 도심에서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차문화 특강, 시음회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체험관 운영에 대해 김영섭 사무처장은 "향후 자연사찰음식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



8월 말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간 사찰음식 체험관 외부 모습과 실내교육시설(사진 원안)

프로그램과 차문화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 사찰음식 및 차문화 전문가 양성 및 관리, 템플스테이 관련 프로그램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찰음식 체험관은 광주 증심사 템플스테이 홍보관 역할도 담당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

고 있는 광주에서 이와 연계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찰의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지와 연계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은 향후 광주불교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암사, 부안경찰서와 청소년 지원 협약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청소년 및 가정 폭력 대상자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8월 12일 부안경찰서 서장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은 부안 이상주 서장, 은희준 청소년 원스톱 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돌봄 청소년 및 성·가정폭력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



암사는 부안서 등과 협조하여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육군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부대 사고로 군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 송광사에서 갖 입대후 훈련병들을 위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위문공연을 펼쳤다.

완주 송광사(회주 도영)는 8월 9일 육군 논산 훈련소 호국 연무대 큰 법당에서 훈련병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대전 죽림정사 광진 스님, 각정 스님 등 송광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불교어머니회, 포교 사단 전북지역단 50여 명이 동참해 훈련병들을 위로했다.

육군 논산 훈련소와 부사관학교 등 군 포교에 발 벗고 나서 가장 많은 수계제자를 배출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도영 스님은 훈련병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



고 건강한 군생활을 당부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곧 자대배치를 받을 병사들이 계율을 지니고 실천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완주 송광사는 수계법회 후 훈련병들을 위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맨스그룹을 초청해 위문 공연을 펼쳐 연무대 법당을 열광의 도가니로 불어넣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8.15 광복절을 맞아 최초로 공개된 일제 강점기 전주 신사의 모습

동국사 종결 스님, 일제강점기 전주 신사 최초공개

군산 동국사 종결 스님이 일제가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사적단 터에 건립한 '국폐소사(國弊小社)'였던 전주신사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다.

종결 스님과 전주문화원은 광복절을 앞둔 11일 전주신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집서 4점을 공개했다.

1943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신사 모습은 신사 참배 거부로 폐교된 신원학교 부지와 12만5619㎡의 사적단 터에 전라북도 도민의 성금 13만 7천엔이 투입됐고 당시 운영목 전북지사의 주도로 총 공사비 40만엔을 들여 1938년 공사를 시작해 1944년 도신궁(道神宮) 성격으로 준공했다.

당시 '근로보국대'로 학생과 도민 등 연인원 13만여 명이 강제 동원됐고, 황국신민화의 일환으로 매년 10월10일을 대례일로 정해 신

사참배를 강요했다.

또 일제는 주변 다리의 이름도 '대궁교'로 짓고, 뒷산도 본 이름인 화산 대신 일본 나라 현에 있는 벗꽃 명소인 길야산(요시노산)으로 바꿨다. 그 언저리에 길야산신사를 조성하고 벗꽃을 식수했다.

종결 스님은 "광복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의 침탈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해방 뒤 건물이 철거돼 문헌으로만 존재했지만 이제 그 모습을 통해 향토사 연구와 일제강점기 전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신사는 관폐는 황실, 국폐는 정부, 향사는 지방 관청, 사사는 개인이 신사에 공물을 헌납하고 관폐와 국폐신사는 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년원생들을 위한 수련회 '눈길'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8월 12~13일 여름불교수련회

소년원생들을 위한 불교수련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지난 8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고령정보고등학교(광주소년원) 원생들을 위한 여름불교수련회 및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에는 20여 명의 소년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신스님(향림사), 이재연·김인수·손복순·서순자 포교사의 지도로 불교기초교리, 비디오 상영, 108참회정진, 한글전수경 공부, 수행상단,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13일 진행된 수계법회는 소년원생과 포

교사들이 참여한 육법공양에 이어 예경삼보, 거양한, 독경, 청성, 청사, 청법, 개도, 참회, 연비, 계첩 수여 등이 진행됐다.

도신 스님은 수계법회 법문에서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하는 것은 참다운 불자로 태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이 부여되는 출발점이다"라며, "사회적 규범과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 하고 이를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청소년기에 잠시 방향과 이탈로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 원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견해와 올바른 행동이

참 나를 찾는 길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며 "짧은 수련활동이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행사의미를 말했다.

이날 행사는 소년원생들에게 음식과 과일 등이 제공되었다.

한편 교정교화팀은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와 여름·겨울 불교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년원생들과 1대 1일 멘토링 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부모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생명평화주말학교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광인순)가 전북 고창, 정읍, 부안 일대에서 전통문화유산 답사와 함께하는 '생명평화주말학교'를 진행했다.

전라북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2~3일 진행된 이번 생명평화주말학교는 초등학생들에게 불교문화와 역사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 환경 등의 다

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닳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동학동민혁명기념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박물관, 개암사를 찾아 공동체 놀이 및 개암사아침 산책 및 문화재 탐방, 스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진 월남사지 통일신라 유적 발견

강진 월남사지에 통일신라 유적과 고려 연지가 발견됐다. 8월 13일 강진군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남쪽 자락의 월남사지 삼층석탑(보물 298호)과 진각국사비(보물 313호) 주변 월남사지(月南寺址·전남도 기념물 제125호) 발굴조사 중 통일신라 유적과 고려 연지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월남사지 발굴조사는 지난 2012년 1차 조사에서 백제시대 절터, 2013년 2차

조사에서 월남사의 중심 사역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3차 조사에서 통일신라 유적과 고려시대 연지(遺址)를 확인했다.

또 건물지 11동과 보도시설, 내부담장 등이 확인됐으며 건물에 배치된 초석과 적심, 석렬 등이 불규칙하게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시기를 달리해 건물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4번에 걸쳐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진 흔적이 토층과 유구에서 확인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두공부의 마귀는 없다
『선문염송』에서 가려 뽑은 화두 53선

기존의 화두공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화두공부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접근으로 화두의 본질과 공부를 지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

이수경 지음/신국판/330쪽/값 15,000원

극락왕생을 위한 임종 안내서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죽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종을 맞이한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임종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매뉴얼을 담은 책!

염불을 통해 극락정토에 왕생한 영험담 수록

인광, 홍일 저/박병규 외 옮김/신국판/248쪽/값 11,000원

광대무변한 화엄 세계의 핵심을 210자로 압축한 계승!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선수행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풀이하였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노래!

법성계

法性偈

강해

의상대사 지음/김상백 풀이/신국판/206쪽/값 12,000원